

UNKNOWN WORLD

남미의 외딴 도시, 파라과이 아순시온

# City of Traditions

강렬한 색(色)과 화려한 현(絃)의 도시 아순시온. 남미 대륙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한때 고립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띠었던 도시는 여전히 지역 토착 문화를 지키며 그 나름의 리듬과 호흡에 따라 삶을 이어 가고 있다.

In Paraguay's vibrant and relaxed capital city, age-old rituals blend seamlessly into modern life. Tucked away among lush landscapes, Asunción awaits discovery.







A warm breeze sends cascades of pink flowers drifting through the air, laying a bright carpet down along the streets of Asunción. Stepping out onto the sidewalk, I pause to admire the colorful spectacle. A cab driver sits nearby; he, too, is gazing upwards. "These are Lapacho flowers," he says. In a few months the pinks will give way to orange chivato blossoms and later to the lilac flowers of the Jacaranda tree. In this city of plazas and tree-lined avenues, each season brings a new burst of color.

This is the heart of Latin America, where indigenous roots remain strong, as if fortified by the tropical climate. People call out to one another melodically in Guaraní, the country's indigenous language. Born of the wilderness, it has been spoken in this region since before the European colonists arrived. In shady plazas, people gather to drink tea made from yerba mate, a medicinal plant prized by the Guaraní Indians. Served with much ceremony, the drink is meant to energize, the ritual to relax.

Indigenous and European cultures first became interwoven in Paraguay's colonial missions. Some, such as the famed Jesuit missions, were eventually abandoned, left to ruin. Others, such as Yguarón, have evolved into thriving towns. During the patronal feast of San Buenaventura, Yguarón's townspeople celebrate as they have for centuries, with a serene religious procession and an energetic rodeo.

Asunción moves at its own pace, relaxed, yet full of energy. Buses weave their way through the streets as vendors push carts full of snacks and beverages along the sidewalk. Indigenous artisans, bedecked in feathered headdresses, silently offer wooden carvings of crocodiles and armadillos to passers-by.

I explore the city's train station, now a museum filled with the echoes of a bygone era. Though most of Paraguay's steam-powered railway system ceased operations years ago, it remains a powerful symbol of the country's former prosperity. It connected Asunción with the interior's rural communities and the world beyond. I emerge from the station and walk by the ornate facades of the city's historic buildings. They have endured, even as the city and its people evolved around them. Time moves on, but in Asunción, the past is ever-present.

거리마다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분홍색 꽃들이 산들바람에 하늘 거린다. 아순시온 시내에 화사한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하다. 내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자 근처에 앉아 나처럼 꽃을 바라보던 택시기사가 말을 건넸다. "라파초라는 꽃나무라오." 몇 달 후면 이 꽃들은 주홍빛 치바토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치바토가 진 후에는 하카란다 나무들이 연보랏빛 꽃을 피울 테고 말이다. 드넓은 광장, 그리고 싱그러운 가로수가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아순시온에는 매 계절 색색의 향연이 펼쳐진다.

남미 파라과이의 심장부 아순시온은 현대 대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지역 토착 문화가 여전히 단단하게 뿌리내린 도시다. 옛것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 도시에 발을 디디면 리듬감 넘치는 억양으로 서로를 부르는 독특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반긴다. 아순시온의 토착어, 파라니어다.

길을 걷던 중, 신비의 생물체를 형상화한 조각상 여러 개가 눈에 띄었다. 현지인들은 이 생물체들이 시골 어딘가에 산다고 믿는다. 도마뱀 몸통을 한 채 으르렁거리는 개, 오후 한적한 시간이면 아이들을 납치해간다는 창백한 피부의 소년, 검고 덩수룩한 머리에 눈매가 무서운 원시인 등 언뜻 보기에도 진기한 존재들이다. 광장의 나무 그늘 밑에선 사람들이 예르바 마테 차를 마시고 있다. 예르바 마테는 파라니 족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약초로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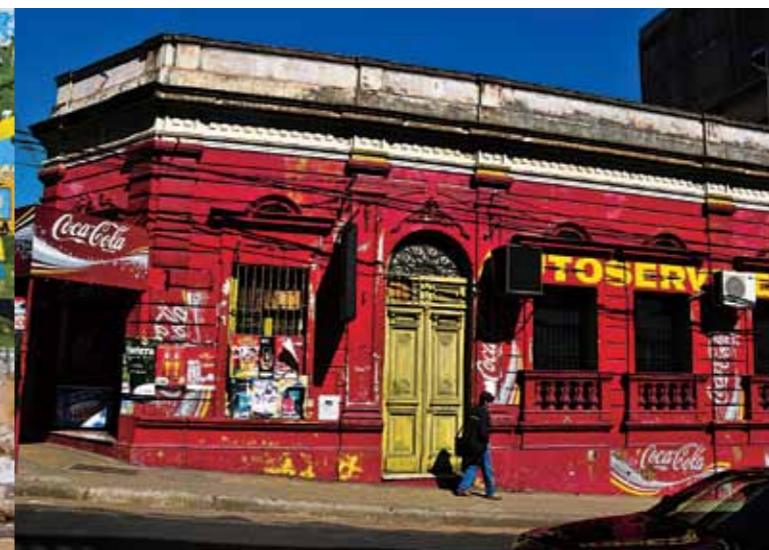
봉해온 식물이다. 차를 마실 때도 일종의 다도 의식을 수행하며 마신다. 차는 원기를 북돋워주고, 다도 의식은 긴장을 풀어준다.

파라과이의 토착 문화는 식민지 시절 선교사들을 통해 들어온 유럽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예수회 같은 선교단의 정착지 몇 곳은 발전을 거듭해 아과론처럼 번듯한 도시로 성장했을 정도다. 수호성인 성(聖) 보나벤투라를 기리는 축제가 열릴 때면, 아과론 시



파라과이 아순시온 시내를 달리는 낡았지만 정감 넘치는 버스(위 왼쪽). 약효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전통 음료 예르바 마테 차. 파라과이 사람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차(위). 역사의 흔적으로 가득 찬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의 도심 풍경. 사뭇 이색적이다(아래). 벽화 앞에 서 있는 현지 경찰들(아래 왼쪽).

(Clockwise from opposite above) Riding an old bus in Asunción, Paraguay; medicinal tea made from yerba mate, a traditional local drink; the colorful city center of Paraguay's historic capital; local policemen stand in front of a mural.





민들은 경건한 종교 행진과 활기찬 로데오 경연을 펼친다.

아순시온에는 이 도시만의 리듬과 호흡이 있다. 버스는 여러 갈래의 도로를 쉼 없이 달리고, 노점상은 먹거리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며 보도 위를 지나다. 공예가들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말없이 악어 목상(木像)과 남미 동물 아르마딜로 조각상을 내민다. 직장인들은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순백의 대통령궁은 새파란 하늘과 대비되어 눈부시게 빛난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개조된 옛 기차역으로 향했다. 파라과이의 증기열차 시스템은 대부분 운행이 중단됐지만, 이 박물관은 과거 파라과이의 철도 산업이 번성했던 시기를 생생히 보여준다. 파라과이의 증기열차망은 나라가 지리적 고립에서 탈피해 세상 밖으로 나가기 시작할 무렵에 형성되었다. 말하자면 열차망은 아순시온을 외진 시골 마을과 나라 밖까지 연결해주는 생명선이었다.

기차역에서 나와, 정교한 외관 장식이 돋보이는 유서 깊은 건물들 앞을 걷는다. 이 건물들은 도시와 시민들이 세월에 따라 진화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왔을 것이다. 긴 시간이 흘러도, 아순시온은 과거의 자취를 온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자연에서 얻은 삶** 나는 밝은 색 페인트로 칠한 버스에 올라타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런데 뒤이어 악공 두 명이 올라타더니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능숙하게 연주를 시작한다. 한 명은 기타를, 다른 한 명은 파라과이 하프를 경쾌하게 튕겼다. 이 하프는 수세기 전 예수회 선교단이 소개해준 것인데, 파라과이 사람들은 이 하프를 문화의 일부로 흡수했고, 그들은 폭포나 새소리 등 목가적 자연 풍경을 찬미하는 노래를 만들어 연주하고 불렀다. 부드러운 하프 선율은 아순시온 전역을 달콤하게 물들인다. 서민들이 활보하는 시장에서도, 객석이 꽉 찬 공연장에서도 하프는 현 지인뿐 아니라 낯선 이방인까지 매혹시킨다.

도심 광장을 거닐던 중, 작은 수공예품 코너를 천천히 돌아보는데, 붙임성 좋은 공예가들이 한번 만져보라며 식탁보와 브로치를 보여준다. 식탁보의 자수 무늬와 브로치의 은사(銀絲)가 대단히 정교하고 섬세하다. 한 여인은 무지개 빛깔로 짠 꽃무늬 레이스를 펼쳐 보였다. '난두티'라고 부르는 것으로 '거미줄'이라는 뜻이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난두티는 본래 사랑의 증표로 탄생했다고 한다. 누군가 달빛에 빛나는 거미줄을 보고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고. 오늘날 공예가들은 야자수 잎, 시계꽃 열매, 개미뿔, 별 등 다양한 요소를 난두티의 무늬로 응용한다.

강가를 걷는 사이, 통통배들이 강을 건너는 모습이 보였다. 배가 지나간 자리의 잔물결 위로 도시의 풍경이 그대로 비쳤다. 물가 너머에는 울창한 녹음이 펼쳐진다. 남미의 외딴 도시 아순시온은 전통이 살아 숨 쉬고, 일상의 면면마다 영감의 요소가 스며 있는 도시였다. ● 글 로미 나탈리아 골드버그 사진 데이비드 듀코인



예수회 선교단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적지(위). 남은 증기열차는 과거 파라과이의 철도 산업이 크게 번성했던 시기를 추측케 한다(위 오른쪽). 파라과이의 유명한 전통 기타 제작자, 니콜라스 데바리 사나브리아(아래 오른쪽). 파라과이 하프는 예수회 선교단과 함께 이 나라에 들어온 첫 서양 악기다(아래).

(Clockwise from above) The ruins of a Jesuit mission; an old steam train, a symbol of Paraguay's former prosperity; Nicolas Devari Sanabria is a famous maker of traditional guitars in Paraguay; the Paraguayan harp, introduced to the country by Jesuit missionaries.



**Inspired by Nature** I take my seat on a brightly painted bus. Two musicians soon board and, deftly maintaining their balance, begin to perform. One strums the guitar, the other plucks rhythmically at the strings of a Paraguayan harp. This instrument is the lasting legacy of the Jesuit missionaries who, centuries ago, introduced

harp to the native inhabitants of their missions, deep in the jungle. Paraguayans quickly embraced the harp as their own, creating compositions about idyllic waterfalls and birdsong. The harp's sweet tones ring throughout the city, entertaining shoppers in the marketplace and mesmerizing audiences in packed concert halls.

Strolling through the central plaza, a small handicraft market catches my eye. Cheerful artisans invite me to run my fingers along intricately embroidered tablecloths and to examine fine brooches spun out of silver thread. A woman lays before me delicate lace flowers, composed of rainbow-colored geometric patterns. "Ñanduti," she says, "the name means 'cobweb.'" According to legend, the first Ñanduti was created as a token of love and inspired by a spider's web, seen shimmering in the moonlight.

Near the waterfront, boats putter by, leaving a rippled reflection of Asunción in their wake. Across the bay, lush landscapes unfold. In this secluded corner of South America, deep-rooted traditions endure and inspiration is everywhere. ● By Romy Natalia Goldberg Photographs by David Ducoin







대한항공은 상파울루로 주 3회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São Paulo three times a week.

● **찾아가는 길** 아순시온 여행객들은 대부분 비행기를 이용한다. 상파울루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매일 있고, 마이애미에서 출발하는 항공편도 있다. 여행사들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 상품을 제공한다. 유서 깊은 예수회 선교단 유적지도 방문하는데, 산티시마 트리니다드 데 파라나, 헤수스 데 타바랑게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대평원 시대인 차코에서 야생동물을 관찰하기도 한다. 골드 서킷 역시 인기 있는 여행 코스다. 아순시온 외곽의 작은 마을을 순회하는 일정으로, 마을의 자랑인 수공예품과 종교 전통을 접할 수 있다. 이웃나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걸쳐 있는 장엄한 이과수 폭포 방문도 가능하다.

● **추천 숙박지** 품격 있는 휴식을 원한다면 '요트 이골프 클럽 파라과요 리조트'(www.resortyacht.com.py)를 이용하자. 파라과이 강변에 있어, 호텔의 고급 시설을 편안히 누리는 동시에 주변 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도심에서 불과 14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하지만, 낙원처럼 고요한 정취를 즐길 수 있다. 도시를 선호하는 여행객은 '그란 오텔 델 파라과이'(www.granhoteldelparaguay.com.py)를 추천한다. 호텔은 본래 1800년대에 지은 대규모 저택으로, 파라과이의 세 번째 통치자 프란시스코 솔라로 로페스의 연인이었던 아일랜드 여인 린치 부인의 소유였다. 그녀는 열대나무 사이에 지은 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호화로운 삶을 누렸다.

● **방문 시기** 파라과이를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낮 기온이 온화하고 상쾌한 5~10월 사이의 건기다. 봄여름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자외선 차단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말 것. 겨울에도 종종 날씨가 따뜻하게 폴리곤 하니 가벼운 옷을 꼭 준비한다. 10월에는 많은 연주자들과 음악 팬들이 모이는 페스티벌 '문디알 델 아르파'(세계 하프 축제)가 아순시온에서 열린다. 아순시온의 멋진 시립극장에서 사흘간 열리는 이 축제에는 파라과이 국내외의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참여한다.

● **GETTING THERE** Most visitors to Asunción arrive by air. There are daily flights from São Paulo. Several tour companies run excursions to top tourist attractions, guiding visitors through the historic Jesuit missions (the ruins of both Santísima Trinidad de Paraná and Jesús de Tavarangue have been declared UNESCO World Heritage sites) and seeking out wildlife in the vast expanses of the Paraguayan Chaco. Another popular option is the Golden Circuit, which covers a series of small towns surrounding Asunción known for their handicrafts and religious traditions. Trips to see the magnificent Iguazu Falls in neighboring Brazil and Argentina can also be arranged.

● **WHERE TO STAY** Relax in style at the Resort Yacht y Golf Club Paraguayo (www.resortyacht.com.py) situated along the banks of the Paraguay River. The resort's ideal location allows guests to soak up Asunción's natural surroundings in high-class comfort. Just 14km from the heart of the city, it is an oasis of

tranquility. Those who prefer a more central location can immerse themselves in history at the Gran Hotel del Paraguay (www.granhoteldelparaguay.com.py). Dating from the 1800s, this grand manor was once owned by Madame Lynch, the Irish-born lover of Paraguay's third president, Francisco Solano López. The hotel's elegant floral murals are a testament to the splendor Madame Lynch craved and created in her tropical home.

● **WHEN TO GO** The best time to visit Paraguay is during its dry season, between May and October, when daytime temperatures are mild and pleasant. Winter visitors should bring lightweight clothes, as warm snaps are common. In October musicians and music lovers gather in Asunción for the Festival Mundial del Arpa (World Harp Festival). Held in the city's charming Municipal Theater, this three-day festival features acclaimed Paraguayan and international harpists.

자세한 문의는 ☎ **한진관광**으로 문의바랍니다.  
More travel information is available from ☎ **HANJIN TRAVEL** [www.kaltour.com](http://www.kaltour.com)



아순시온 파라과이강  
Paraguay River, Asunción

© David Ducoin / Lightmediation